

오늘의 해양쓰레기

2019년 한국 국제연안정화 199곳에서 열려

최근활동_

- 1 2019년 한국 국제연안정화 199곳에서 열려
- 2 '바다청소365' 참가자 모집
- 3 소망을 꼭 풍선에 담아야 할까요?
- 4 '해양수산 열린소통포럼' 친환경 부표 개선 방안 토론
- 5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제로화 추진 정책 토론회 참가

공지사항_

- 1 전국 학생 미세플라스틱 체험 프로그램 안내
- 2 리와인드, 환경캠페인 수익금 기부
- 3 2019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드립니다.
- 4 OSEAN 세미나 2020년 1월 공지
- 5 2019년 11월 회비 내주시분들입니다

연구동향_

- 1 제353회 세미나: 해로운 화학 물질, 항생제, 금속, 박테리아 병원체 및 HAB종의 신흥 공급원 및 벡터로서 선박평형수의 미세 플라스틱: 해양 환경 및 인간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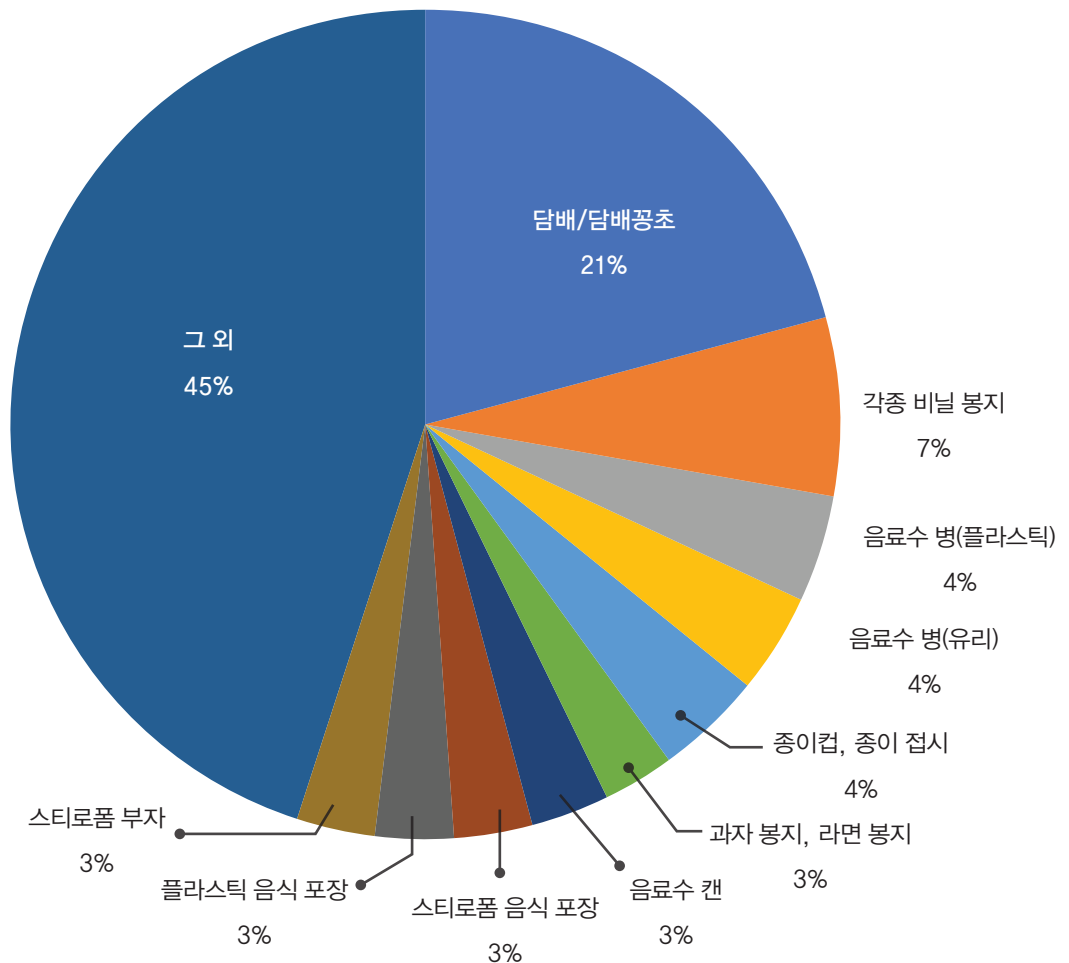
이 달의 해양환경 뉴스_



2019년 한국 국제연안정화 199곳에서 열려

이종명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 연구소장
jmlee@osea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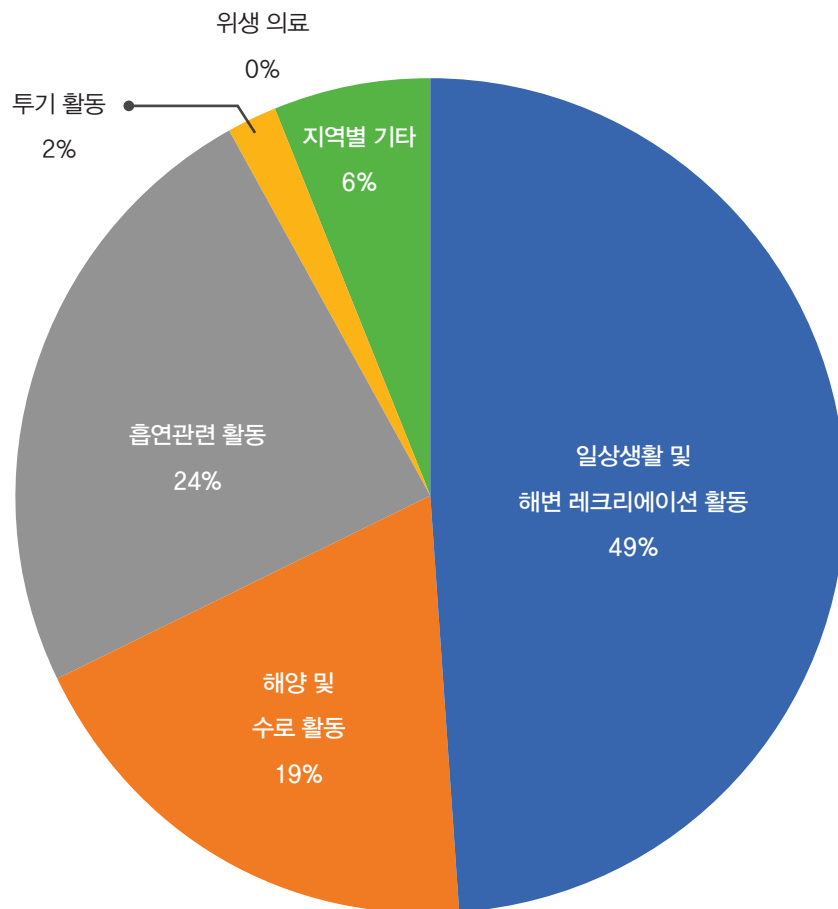
4천4백여 명이 167 km 해안 청소하며 쓰레기 종류 기록



해양쓰레기 top 10
(2019 한국 국제연안정화)

올해 한국 국제연안정화 행사가 전국 199 곳에서 열렸다. 우리나라 국제연안정화 행사는 2001년 20 곳에서 시작했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개최지가 늘어나 올해에 가장 많은 곳에서 행사가 열렸다. 국제연안정화는 전세계 시민들이 바다쓰레기를 줍고 기록하는 행사이다. 쓰레기를 단순히 치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원인을 찾아서 예방을 위한 정책과 시민행동 변화에 활용하는 것이 국제연안정화 행사의 주 목적이다. 1986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전세계 120 여 개 나라에서 1백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환경 자원봉사 행사로 발전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국제연안정화에 참가한 시민은 4천4백여 명이고, 이들이 167 킬로미터의 해안에서 줍고 기록한 쓰레기는 무려 10만 개가 넘는다. 2019년 한국 국제연안정화에서 개수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는 담배꽂초로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2위는 각종 비닐봉지로 7%였다. 플라스틱과 유리 음료수병이 모두 4%로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해양쓰레기 상위 10위에 포함된 쓰레기기는 종이컵, 과자봉지, 음료수 캔,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음식 포장 등 일회용품이 많았다. 그런데, 또 이들은 대부분 재활용 분리 배출 대상으로 분리수거함에 넣기만 하면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들이다. 아직 우리나라 재활용 문화와 행정에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해양쓰레기 발생원 구성
(2019 한국 국제연안정화)

최근활동

발생원인별로는 일상생활 및 해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서 나온 쓰레기가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해양 수산 관련 쓰레기는 20%였다. 예년의 전세계 국제연안정화 결과에서 해양 수산 관련 쓰레기는 거의 5%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해상기인 쓰레기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우리나라 국제연안정화 행사의 특징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사례가 늘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다우, 나이키, 지오시스템리서치 등 기업의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여러 곳에서 열렸다. 또, 엘지생활건강에서는 국제연안정화 참가자 안내서(<https://cafe.naver.com/osean/2641>)의 제작을 후원하기도 했다. 몇몇 행사에서는 스마트폰 앱 '클린스웰(Clean Swell)'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기록했다. 클린스웰은 영어 전용이지만 종이카드 없이 간편하게 쓰레기를 기록하고, 결과도 웹(www.coastalcleanupdata.org)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바다청소365’ 참가자 모집

이종명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 연구소장
 jmlee@osean.net



OSEAN
 Our Sea of East Asia Network

바다청소

365





1. 목적과 내용

- ‘바다청소365’는 일년 내내 바다를 청소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캠페인입니다.
- 이 캠페인 참가자들은 한 달 중 하루를 정해서 자기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국제연안정화(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ICC) 앱 ‘클린 스웰(Clean Swell)’로 기록합니다. 📱
- 자신이 정한 날짜에 언제, 어디에서건 쓰레기를 줍고 기록하면 됩니다. 바닷가, 길가, 강가, 해상, 수중 어디라도 됩니다. 육지의 쓰레기도 강을 따라 바다로 들어가니까요. 단, 반드시 클린스웰로 기록을 남기고 공유해 주세요.
- 1월부터 31일까지 모든 날짜에 청소를 하면 한국에서는 일년간 하루도 빠지는 날 없이 국제연안정화가 진행됩니다. 원하는 날짜 하루를 정해서 참가 신청을 하시고, 2020년에는 매월 그 날 클린스웰로 청소하세요.
- 자신이 어떤 쓰레기를 주웠는지 SNS에서 공유해주시고, 2명에게 참가 추천을 해주세요. #바다청소365#국제연안정화

2. 참가 신청

-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정해진 날짜에 하루씩, 모두 12회 참가합니다.
- 아래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에서 자신이 참가 할 날짜 하루를 정해서 ‘참석함’을 클릭해 주세요. 1월의 날짜에 클릭하지만, 2020년 1년 동안 참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https://www.facebook.com/events/484850018804927>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사무국으로 카톡, 문자, 메일 등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 Clean Swell에서는 group에 ‘OSEAN365’를 입력해주세요.

3. 참가자 기념품

이 캠페인은 (주)리와인드 김은정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1년동안 매월 참가하신 분들께는 (주)리와인드의 기부금으로 제작한 기념품을 드립니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53020)경남 통령시 광도면 죽림3로 23-57, 다임슬카운터 101동 210호
 전화 055-649-5223, 5224 / 팩스 0303-0001-4478 / E-mail osean@osean.net / Homepage www.osean.net

소망을 꼭 풍선에 담아야 할까요?

이종명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 연구소장
jmlee@osean.net

새해맞이 행사 등에 대량 사용, 풍등은 산불 위험도



소망을 담아 날리는 풍선과 풍등은 환경 오염과 화재 위험을 안고 있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이하, 오션)이 지난 1년간 언론에 보도된 풍선, 풍등 날리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연간 123건의 행사에서 최소 1만 6천 개 이상의 풍선을 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날린 풍선의 숫자가 나와있지 않은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실제 사용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기적으로는 1월이 제일 많아서, 주로 새해맞이 행사에서 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선과 풍등을 하늘로 날려보내도 결국 이것들은 땅이나 바다로 다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떨어진 풍선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야생동물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풍선에 달려 있는 줄과 풍등의 틀은 야생동물을 죽이는 덫이 될 수 있다. 실제 전세계적으로 거북, 고래, 바다새 등이 풍선 줄에 걸려서 죽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¹. 미국어류 야생동물 보호청(U.S. Fish and Wildlife Service)에서는 풍선을 날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².

풍선 날리기 때문에 안타까운 인명이 희생된 사례도 있다. 1986년 미국 클리블랜드시에서는 150만개의 풍선을 날리는 행사를 했는데, 때마침 발생한 선박 사고 인명 구조 헬기가 이륙하지 못하고, 또 물 위에 떨어진 풍선이 물에 빠진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이런 상황에서 사망자도 발생했다고 한다³.

불을 붙여 날리는 풍등은 화재의 위험도 있다. 2018년 고양 저유소 화재가 풍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4년과 2015년 강원도 고성군과 동해시에서도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다.

오션은 2019년 네이버 해피빈에 '풍선 풍등 날리기 중지' 캠페인 모금함을 개설했다. 이 모금함에 해양수산부 등의 기부금 5백만원 이상이 모였다. 오션은 이 기금으로 풍선 풍등 날리기의 문제점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을 방문하여 풍선 풍등 날리기 행사를 중단하기 위한 법규 개정, 자발적 선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 <https://balloonsblow.org/impacts-on-wildlife-and-environment/>

2) <https://www.fws.gov/news/blog/index.cfm/2015/8/5/balloons-and-wildlife-please-dont-release-your-ballo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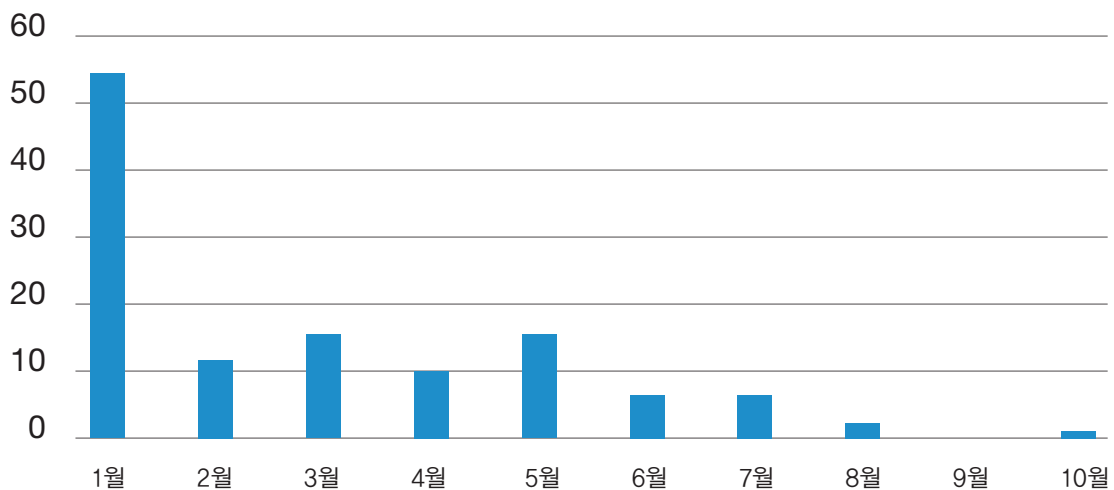
3)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06182&memberNo=11459016>

2019년 풍선 풍등 날리기 행사 언론 보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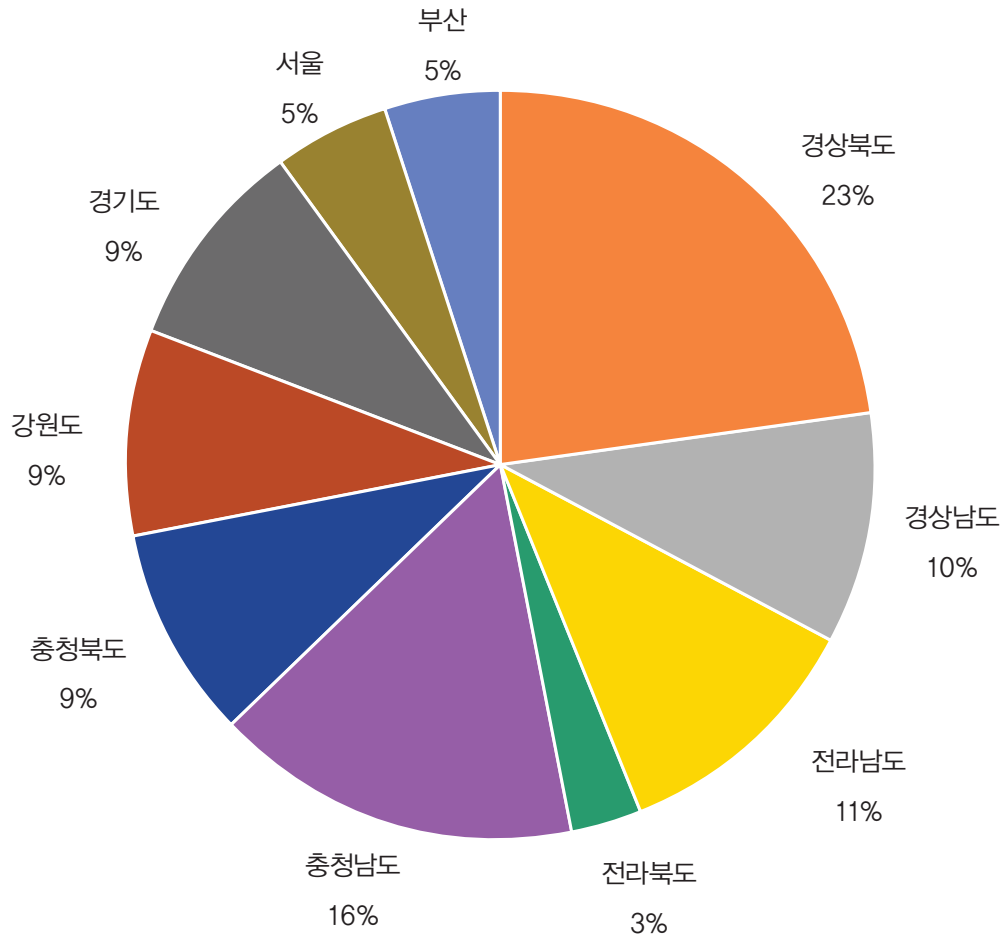
가장 많은 풍선을 날린 행사

행사명(지역)	날린 풍선 수(개)
미세먼지 속의 다이닝(서울)	2000
해맞이 행사(강원도)	1000
해맞이 행사(울산)	1000
해맞이 행사(광주)	1000
신년맞이(대전)	1000
금일읍다시마축제(완도)	1000
3.1절 100주년 나라사랑 걷기대회(청주)	1000
2019년 시무식(대전)	1000
2019 대전 맨몸마라톤대회(대전)	1000
2019 희망더하기(인천)	600
동명대 신입생 입학식(부산)	500

풍선 풍등 날리기 언론보도 시기별 분포 (2019년)



풍선 풍등 날리기 언론보도 지역별 분포 (2019년)



‘해양수산 열린소통포럼’ 친환경 부표 개선 방안 토론회

이종명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 연구소장
jmlee@osean.net

공무원, 어업인, 소비자단체 참여, 양식 부자 문제 해결 방안 논의



친환경부표 인증 현황에 대해 소개하는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이상길 과장

양식용 부자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 열린소통포럼’이 2019년 11월 26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열린포럼’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해양보전과 등 중앙부처 관련 공무원, 부산녹색소비자연대,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소비자 단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통영거제환경연합 등 환경단체에서 총 30여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을 교환했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에서는 이종명 연구소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가했다.

지속가능 수산물 인증제로 친환경 양식으로 전환 필요

포럼은 주제발표, 지정토론,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미국환경단체 오션아웃컴스(Ocean Outcomes)의 박지현 디렉터는 국제적인 지속가능 수산물 인증제 사례를 소개하고, 지난 2년 동안 통영에서 어업인들과 함께 굴 양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한 성과를 소개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이상길 과장이 친환경부표 인증제도와 현재 이 제도가 마주한 문제점에 대해 소개했다. 이미 400여 가지 종류의 부표가 친환경 부표 인증을 받았고,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 예산을 늘려왔지만 정작 양식업 현장에서는 어업인들이 친환경 부표를 사용하기 꺼려하는 현실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부표 과다 사용 않는 고부가 가치형으로 양식 방법 바꿔야

이종명 소장은 친환경부표 인증제도의 근본 목적이 미세플라스틱과 해양오염 방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정 재질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 보다 근본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인증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인증 제도에는 사후 관리 절차가 없어서 인증을 받을 때는 양질의 부표를 내놓고, 실제 어업인에게는 질 낮은 부표가 보급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친환경 부표의 재활용 가능성도 인증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본적으로는 부표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연승수하식에서 부표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고부가가치 생산형 양식으로, 양식 방법 자체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션, 10년간 스티로폼 폐부표 줄이기 노력 지속

오션에서는 전국 해안쓰레기 모니터링과 해변 플라스틱 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바다를 가장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것이 양식용 스티로폼 부표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10년째 지속해왔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정책 개발 워크숍을 개최하고, 2014년에는 스티로폼 부표 재활용 감용장 운영 실태 조사, 2015년에는 경남지역 어업인 면담을 통한 폐부표 발생량 조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정부의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에서 폐부표 쓰레기 줄이기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었다. 2016년부터 해양수산부의 ‘어업용 폐스티로폼 부표 통합관리 체계 구축’ 연구에 참여하여, 폐부표 회수 시범사업과 어업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제로화 추진 정책 토론회 참가

이종명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 연구소장
jmlee@osean.net

홍선욱 대표 발생량과 피해 영향 함께 고려한 효율적 관리 방안 제안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제로화 추진 정책 토론회가 2019년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서삼석 국회의원, 전라남도 주최, 무등일보 주관, 해양수산부 후원으로 열렸다. 토론회에는 서삼석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관련 공무원, 전문가, 그리고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에서는 홍선욱 대표가 '전남의 해양쓰레기 실태와 관리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오션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및 대응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홍선욱 대표의 발표는 이 연구 용역의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

홍선욱 대표는 발표에서 전라남도 해양쓰레기의 발생원별 유입량, 해안·부유·침적 쓰레기 현존량, 양과 영향에 기반한 효율적 대응 정책 등을 소개했다. 전라남도는 우리나라에서 양식업과 잡는 어업이 모두 가장 발달한 지역이다. 따라서,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도 많다. 홍선욱 대표는 이러한 해상기인 쓰레기 발생 저감을 위해 '유실 어구 신고제', '생애주기 어구 관리 및 자원 순환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전남지역에 많이 유입되는 중국 기인 쓰레기 대응을 위해 유입량과 피해 영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우선 추진하여 외교적 대응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바다에 들어온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기 위해, 현존량이 밀집되어 있는 유인도서 쓰레기 수거 체계를 갖추고, 부유와 침적 쓰레기는 피해 영향 평가에 기반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제 353회 세미나: 해로운 화학 물질, 항생제, 금속, 박테리아 병원체 및 HAB종의 신흥 공급원 및 벡터로서 선박평형수의 미세 플라스틱: 해양 환경 및 인간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험

이종명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 연구소장
jmlee@osean.net

선박평형수 속의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 및 인간 건강 영향 최초 검토

2019년 12월 10일 제353회 오션 세미나에서는 '해로운 화학 물질, 항생제, 금속, 박테리아 병원체 및 HAB종의 신흥 공급원 및 벡터로서 선박평형수의 미세 플라스틱: 해양 환경 및 인간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라는 논문을 공부했다. 이 논문은 '해양오염 국제 학술지(Marine Pollution Bulletin)'에 2019년 발표되었다.

원문

Naik, R.K., Naik, M.M., D'Costa, P.M., Shaikh, F., 2019. Microplastics in ballast water as an emerging source and vector for harmful chemicals, antibiotics, metals, bacterial pathogens and HAB species: A potential risk to the marine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Marine Pollution Bulletin* 149, 110525. <https://doi.org/10.1016/j.marpolbul.2019.110525>

요약문 번역

전세계 해수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논문은 금속, 항생제, 독성 화학 물질, 병원성 박테리아 (*Vibrio cholerae*) 및 유해한 조류 번성(HAB)의 형성과 외편모조류의 밸러스트 수를 통해 공급원 및 벡터로서 미세 플라스틱에 중점을 둔 첫 번째 종합 검토입니다. 선박평형수의 미세플라스틱은 공동 선택 메커니즘을 통해 여러 약물에 내성을 가진 인간 병원체의 발달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핫스팟' 역할을 한다. 선박평형수를 통한 먼 국가 사이의 미세 접촉은 세균성 질병 발생 및 HAB 발생률을 높여 인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 2017년 선박평형수 관리 국제협약에는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선박평형수의 선내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 우리는 선박평형수 관리 국제협약에 미세플라스틱을 위험 물질로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결론 내렸다. 효율적인 선상 선박평형수 처리 전략과 선박평형수의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효과적인 기준치가 개발되어야 한다.

토론한 내용

1. 선박평형수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심화 영향

선박평형수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첫 번째 종합적 검토 논문이다. 이전에 두 개의 논문에서 선박평형수에 들어있는 미세플라스틱의 농도 등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지중해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선박평형수의 미세플라스틱의 농도가 다른 주변 해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시아의 해역, 특히 한국 등은 상대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농도가 높아서 이 항구에서 담은 선박평형수에 같은 높은 농도의 미세플라스틱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이 선박평형수는 공해 혹은 다른 항구에서 배출된다. 논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선박 평형수 내의 외래종, 병원균 등에 대해서는 처리 규정이 있지만, 미세플라스틱은 규제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높은 농도의 미세플라스틱이 전 세계의 바다로 퍼져나가는데 선박평형수가 기여할 우려가 있다.

2. 미세플라스틱의 영향에 대한 허술한 검토

논문의 전반부에 제시된 미세플라스틱의 환경 및 인간 건강 영향 관련 검토는 상당히 허술하고, 왜곡 및 과장의 우려도 있다. 특히, 생물과 인간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인용은 아주 제한적 연구 결과를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오류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의 잠재적 위험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예방적 접근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학적 연구 결과를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데 오남용해서는 안된다.

1. 전국 학생 미세플라스틱 체험 프로그램 안내

“오션에서 미세플라스틱 체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홍선욱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대표
sunnyhong@osean.net



● 목적

- 학생들의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환경의식 및 인식변화를 유도
- 미세플라스틱 조사 분석 과학적 기능 훈련과 결과에 대한 과학적 이해 증진
- 지역별 미세플라스틱 특성(발생원) 파악
- 해양환경 활동 학교(교사, 강사) 및 학생 동아리 네트워크 활성화

● 내용

- 참가 단체 모집
- 조사 방법 매뉴얼 보급
- 조사 장비 보급(대여)
- 팀별 미세플라스틱 조사 교육 및 현장 조사
- 탐구 활동 결과 보고회 개최(사례 발표, 시상)
- 후속 활동(지속적 조사, 지역 사회 홍보 등)

● 대상: 초중고 학생동아리 등 10팀(예산 규모에 맞게 조정)

● 기간: 2019년 12월 ~ 2020년 12월

● 현장 조사

- 장소: 10곳(팀당 모래 해안 1곳, 표착선 3개 방형구)
- 횟수: 3회(2019년 1회, 2020년 2회); 동일 해안
- 참가 인원: 10명(팀당) 내외

● 조사 매뉴얼 (책자 및 동영상)

- 미세플라스틱의 이해
- 해변 미세플라스틱 조사 방법
- 조사 키트의 활용

- 온라인 조사 결과 입력(구글 폼 등)
- 조사 결과의 활용
- 후속 활동

● 조사 장비 키트 (예산에 따라 조정)

- 체 2종(과학 기자재 5 mm, 1 mm), 방형구(스텐리스 주문 제작)
- 저울, 줄자, 앞치마, 모자, 분진마스크, 휴대용 현미경
- 기록장, 필기도구, 받침대 등

● 결과 분석 및 활용

- 해변 중소형 플라스틱 지역별(시기별) 풍도 및 조성 분포(지도 작성)
- 해변 중소형 플라스틱 풍도(개수 무게/제공미터)
- 해변 중소형 플라스틱 조성(경질, 발포, 섬유, 박막, 기타)
- 결과 홍보물 제작 및 보고회 개최
- 결과 전시 및 캠페인(지역 자체 및 순회)

● 기대 효과

- 미래세대 해양환경 인식 증진 및 인재 양성
-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문제 사회적 인식 환기
- 미세플라스틱의 특성 파악 및 대책 수립 근거 마련

● 문의

- 이메일 문의 osean@osean.net

● 상세 내용 추후 공지

2. 리와인드, 환경캠페인 수익금 기부

홍선욱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대표
sunnyhong@osean.net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리와인드(대표 김은정)가 그린카페와 환경캠페인을 통해 얻은 수익을 오션에 기부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부금은 김은정 대표가 오션에 제안한 '바다청소365' 캠페인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리와인드(www.rewind2nature.com)는 자연에서 얻은 소중한 자원을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고자 시작된 소셜벤처로 '아이엠그리너'라는 자체 브랜드로 생분해 가능한 일회용품을 제작, 판매하고 이를 수거하여 테이크아웃 용품의 지속 가능한 순환 플랫폼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9월 21일 '국제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당일 매출 전액을 기부합니다.

아이엠그리너는 매출의 1%를
오션에 기부하며 그린카페와 환경캠페인을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Ocean Conservancy® '국제연안정화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토요일,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자원봉사자들과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 환경보전 행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오션의 전국바다 대청소 행사를 통해
해양쓰레기의 양과 영향,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 정책 개발과 국제협력으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3. 2019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드립니다.

이미정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연구원
lovetuyo@osean.net

“2019년 한 해 동안 정성을 보내주신 오션 회원님과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중순 경 오픈됩니다.
- 오션에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연말정산간소화(소득공제증명서류) →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

@ 영수증은 회원님의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영수증을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소득세법 제 81조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타인 명의로 발급은 불가능하오니 회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우편 발송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문의 : 이미정 055-649-5223 osean@osean.net

-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꼭 변경요청해주세요.

4. OSEAN 세미나 2020년 1월 공지

안녕하세요?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에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300여 회의 자체 세미나를 진행하여 왔고, 매달 뉴스레터를 통해 그 결과를 해양쓰레기 관계자들과 나누어 왔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과학 지식과 국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진행해 온 세미나의 성과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2017년부터 공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세미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되며 약 한 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매월 첫 번째 주 세미나는 중국, 대만, 베트남 등에서도 참여하는 국제세미나로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또한 오션의 지식 나눔 활동을 지지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 12. 23
홍선욱 두 손 모아

1월 7일 10:30 AM 제356회 오션세미나: 강의 플라스틱 쓰레기

(Tim van Emmerik, Anna Schwarz, 2020. Plastic debris in rivers. WIREs Water, <https://doi.org/10.1002/wat2.1398>)

회의실 링크:

<https://global.gotomeeting.com/join/653663933>

1월 14일 10:30 AM 제357회 오션세미나: 한국의 해양쓰레기 정책

회의실 링크:

<https://global.gotomeeting.com/join/179127269>

1월 21일 10:30 AM 제358회 오션세미나: 해양 관리 정책을 위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지역해 유출입 예측

(W.R. Turrell, 2020. Estimating a regional budget of marine plastic litter in order to advise on marine management measures, Mar. Pollut. Bull, <https://doi.org/10.1016/j.marpolbul.2019.110725>)

회의실 링크:

<https://global.gotomeeting.com/join/472992525>

1월 28일 10:30 AM 제359회 오션세미나: 먼 거리 해안 해변쓰레기의 선박 기반 사진 평가

(Irene Papachristopoulou, Anastasios Filippides, Elias Fakiris, George Papatheodorou, 2020. Vessel-based photographic assessment of beach litter in remote coasts. A wide scale application in Saronikos Gulf, Greece. Mar. Pollut. Bull, <https://doi.org/10.1016/j.marpolbul.2019.110684>)

회의실 링크:

<https://global.gotomeeting.com/join/294298253>

〈참가신청〉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이메일(osean@osean.net)로 신청해 주세요. 논문을 보내드립니다.

〈결과 정리〉

세미나 과정은 녹화하여 참가자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세미나 내용은 한글로 정리하여 월간 '오늘의 해양쓰레기'를 통해 독자들과 공유합니다.

〈일정 변경〉

부득이한 상황으로 세미나를 열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주 일정이 취소되고 다음 일정은 공지된 대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반드시 세미나 하루 전날(월요일) 오후에 게시판에 변경 공지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 2019년 11월 회비 내주신 분들입니다

이미정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lovetuyo@osean.net

오션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성과 과학성을 지향하는 '연구공동체'입니다. 연구와 조사 사업을 통해 한발 한발 다가가는 연구기관임과 동시에, 여러분이 보태어 주시는 힘을 얻어, 여러분과 함께 가는 시민단체이기도 합니다. 멀리 계시면서도 언제나 믿고 힘이 되어주시는 회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주)부경정공 (주)지오시스템리서치 (주)포어시스 강대석 강동웅 강성길 강정훈 고선화 고진필 공필재
곽연희 곽유상 권미양 권인경 권정은 김건우 김계영 김경신 김경희 김기림 김기만 김기범 김도근 김동은
김민철 김상문 김석현 김선동 김성우 김승규 김영애 김영일 김영준 김용환 김은정 김정아 김종덕 김종범
김지환 김진일 김태훈 김태희 김태희 김해기 김향희 김호상 김호찬 김홍일 김희중 남정호 노현정 도파라
로라김 류종성 목진용 문관용 문명희 문효방 민병걸 박경수 박경화 박나미 박동민 박명관 박미경 박안수
박윤경 박인숙 박주영 박준건 박준용 박지혜 박철민 박출이 박희제 서은희 서영옥 성홍근 손석현 손성민
손현준 송영경 송종원 송한사 시지훈 신의식 신동조 심원준 안명덕 안병덕 안성원 안순희 양수민 오기택
오정순 오정환 원종호 유병덕 유영주 유찬민 육근형 윤동영 윤선화 윤현정 이강만 이경희 이광수 이규태
이동규 이동영 이문숙 이미정 이미희 이보경 이석중 이성환 이승현 이시완 이영호 이은경 이인식 이정윤
이종란 이종명 이종수 이종호 이찬원 이철용 이태식 이현진 임세한 임운혁 임지에 임진아 임효혁 장 미
장원근 장은영 전일구 전태병 전현수 전해영 전홍표 정경필 정수경 정임철 정지현 정형욱 정호승 조갑자
조동우 조성수 조성억 조홍연 주식회사리외인드 주재영 차용택 채흥기 최규표 최승만 최월숙 최정식
최주섭 최지연 최필중 최현우 최희정 하경도한기명 하문주 하인주 한나진 한동욱 해양환경교육센터
허낙원 홍상희 홍선욱 홍성민 홍성진 홍원표 홍준성 황대호 황선주 황열순 황지현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OSEAN)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성과 과학성을 지향하는 '연구공동체'입니다. OSEAN의 취지에 찬성하고 회원이 되고 싶은 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http://www.osean.net/support/support_01.php
위의 주소를 치시면 회원가입과 후원 양식이 나옵니다.

E-mail: osean@osean.net

전화: 055-649-5223

Fax: 0303-0001-4478

주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23-57, 다임솔카운티 101동 210호 (우53020)

회비 및 기부금 계좌: 농협 301-0051-2766-11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이 달의 해양환경 뉴스

이 달의 해양쓰레기에 대한 뉴스를 소개합니다. 해양쓰레기에 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심만큼이나 문제 해결에 힘을 쏟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뉴스를 소개합니다.

1. '해양쓰레기 재활용' 주요 기업 MOU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0898803533>

환경 미디어 강유진 기자 2019.11.26

2. '미세플라스틱 알갱이' 세정제·연마제에 사용금지

<https://news.v.daum.net/v/20191126162228663>

연합뉴스 이광철기자 2019.11.26

3. 공기방울 장벽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http://www.dailybiz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72>

데일리비즈온 심재울 기자 2019.11.29

4. “쓰레기 장난감 애초로워” 스타벅스 병 물고 노는 새끼 물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04668&code=61131611&cp=nv2019.12.07>

[출처] - 국민일보 2019.12.07

5. 죽은 고래 배 갈라보니 100kg 쓰레기 와르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04767&code=61131611&cp=nv>

[출처] - 국민일보 2019-12-07

6. 베트남,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75% 삭감 목표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06001056>

뉴스핌 오염상기자 2019-12-07

7. 쓰레기 몸살 앓고있는 백령도...페트병 주워보니 죄다 중국산

<https://mnews.joins.com/article/23656826>

8. 2140톤 쓰레기를 15억 주고 사는 전남...신안 섬마을의 사연

<https://news.joins.com/article/23657207>

[출처: 중앙일보] 2140톤 쓰레기를 15억 주고 사는 전남...신안 섬마을의 사연

9. 일회용 빨대·수저...관광객 쓰레기에 몸살 앓는 태국 파타야 해변

<https://news.joins.com/article/23658058>

[출처: 중앙일보] 일회용 빨대·수저...관광객 쓰레기에 몸살 앓는 태국 파타야 해변

10. 양쯔강서만 연 146만톤...中 토해낸 쓰레기, 세계로 퍼졌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57295>

[출처: 중앙일보] 양쯔강서만 연 146만톤...中 토해낸 쓰레기, 세계로 퍼졌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소개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Our Sea of East Asia Network, OSEAN, 이하 오션)은 2009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해양수산부 등록)입니다. 오션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교육 홍보, 정책 개발, 국제 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이자 민간 연구소입니다. 해양환경 중에서도 특히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션은 환경 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동시에,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성과 과학성을 지향하는 '연구공동체'입니다. 정부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민과 기업 등 해양환경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는 물론, 우리나라,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션은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를 언제나 열렬히 환영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대표 홍선욱, 연구소장 이종명

연구원 이종수, 이미정, 이은경, 정호승

방문연구원 김지혜

학생 인턴 최상현, 구해산

이사 강대석, 이인식, 시지훈, 이규태, 김기범

상임고문 김인환, 최주섭

예술 감독 김정아

교육 프로그래머 김태희, 이종호

홍보실장 정형욱

사무실 주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23-57, 다임솔카운티 101동 210호 (우53020)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전화번호: 055-649-5223, 5224

Fax: 0303-0001-4478

홈페이지: www.osean.net

<http://cafe.naver.com/osean>

대표 이메일: osean@osean.net

※ 오션에서는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이 뉴스레터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욱 (편집). (2019). 오늘의 해양쓰레기: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월간 뉴스레터.

통권 117호. 2019년 12월.